

1분기 실적시즌...반도체 '맑음'·배터리 '흐림'

'풍향계' 삼성전자 '깜짝실적'·LG전자 '양호실적' 현대차·기아도 선방...배터리업계 실적 둔화 뚜렷

올해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의 막이 올랐다.

지난해 극심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온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대폭 개선되는 반면, 호실적을 이룬 배터리 업체들은 고전하는 등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봄' 왔다...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1.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5조원대로 높아진 시장 전망치를 20% 이상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실적)다. 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조5천700억원도 웃돌았다.

부문의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20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산한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더해 모바일 사업도 갤럭시 S24 판매 호조에 스마트폰 출하가 늘어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1.37% 증가한 71조원을 기록하며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 70조원대를 회복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양대산맥인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 3천400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1분기에도 추가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을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7천760억원이다.

최근 들어서는 2조원대(KB증권 2조2천100억원, DB금융투자 2조3천672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날 잠정실적을 발표한 LG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2조9500억원으로 역대 1분기 최대치를 달성했다. 영업이익도 1조3천329억원으로 1분기 기준 2020년 이후 5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기며 양호한 수익성을 이어갔다.

◇자동차, 올해도 호실적 예상...잘 나가던 배터리 '주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현대차와 기아도 전년 대비 성장은 제한적이어서도 호실적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조5천359억원, 2조6천800억원이다.

분기 최대 실적을 쓴 작년 1분기보

다는 각각 1.58%, 6.75% 줄어든 수준이지만 역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출 전망치는 현대차가 지난해 동기보다 4.7% 증가한 32조5천580억원, 기아가 4.3% 증가한 24조7천600억원이다.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증가, 기아는 HEV와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가 긍정

적인 요인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에 실적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5일 공시한 1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천5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5.2% 급감했고, 매출도 6조1천287억원으로 29.9% 줄었다. /연합뉴스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Pro' 출시
삼성전자는 사용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Pro'를 8일 삼성닷컴에서 공개하고, 구매 사전 알림 신청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올인원 Pro'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투데이경제



농협자산관리 광주전남지사 '우리마을 희망동행' 캠페인

농협자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는 7일 "최근 남광주농협과 광주시 남구 임정마을을 방문해 '우리마을 희망동행'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희망동행'은 농업인 신용회복 지원에 기여한 농·축협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향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캠페인에서 농협자산관리 광주전남지사와 남광주농협은 마을회관에 안마의자를 지원했다. 임정마을 주민들은 고된 농업활동으로 생긴 피로로 안마의자를 이용해 풀 수 있게 돼 고맙다며 입을 모았다.

송민수 농협자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축협과 관내 마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광주조달청, 관내 기업 '혁신시제품' 선정

광주지방조달청은 7일 "올해 제1차 혁신시제품 지정심사에서 관내 3개 기업 제품이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주식회사 지엔이피에스의 지능형 전력공급 체계를 갖춘 '폐쇄형 배전반' ▲유한회사 삼승엔씨의 도로변 약취역류·배수기능을 개선한 '선배수로 시스템' ▲주식회사 아성온의 폐수 재활용을 위한 'ICT진 환경 정화장' 등이다.

폐쇄형 배전반은 군 비상전력 상시 연계와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선배수로 시스템은 반복되는 집중 호우 상황에서 도로변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에 따른 재산 피해와 교통 불편 발생을 줄일 것으로, ICT진 환경 정화장비는 노후된 건물 배관의 수질오염을 파악하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수질을 확인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지기자

전남 하나로마트, 참외·대파 특별 할인

농협 광주본부도 12일 금요일저녁가장 개장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7일 "오는 12일까지 전남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참외, 대파에 대한 특별 할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납품단가 지원·자체할인과 정부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 참외(1.2kg), 대파(1단)를 각각 1만3천500원, 1천386원에 판매한다.

전남농협은 소비자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도 오는 12일 농협광주본부 주차장에서 도농상생 금요일저녁가장 개장식을 열고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사과, 배, 미니토마토, 가지, 한우 등의 품목을 농협자체 할인·정부할인 등을 적용, 최고 45%까지 할인한다. /김현지기자

'의료·금융·부동산업' 불황 모른다

10년째 성장 지속...'업종간 균형 성장 필요'

지난 10년간 생산지수가 한 차례의 뒷걸음질 없이 매년 증가한 '불패' 서비스업은 전체 37개 업종 중 금융·의료·부동산 등 5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최근 10년(2014-23년)간 연평균 2.6% 증가했다.

연간 등락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2.0%)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서비스업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세부 업종별로 보면 온도 차가 컸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37

개 업종 중 10년 연속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금융·보건·사회복지·부동산·임대(부동산 제외) 등 5개 업종에 그쳤다.

이중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는 재정 등 공공지출이 일부 견인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입김' 없이 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4개다.

이차 등 금융수익을 토대로 산출되는 금융업 생산지수는 10년간 연평균 6.6% 증가해 5개 업종 중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모, 비대면 금융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병의원 매출이 반영된 보건업 생산지수는 10년간 6.4% 성장하면서 뒤를

이겼다. 보건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기대수명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부동산 임대·중개·개발 등 부동산업은 10년간 연평균 3.5% 증가했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도 부동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3.2% 늘며 증가 행진을 이어갔다.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도 10년간 연평균 5.8% 증가했다. 공유 시장이 꾸준히 확산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 연구실장은 "금융·보건·부동산업은 모두 수출 기여도가 낮은 업종들이라며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업종 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14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0 16 19 32 33 38 /보너스 3		
1등	1,583,813,824	6개 숫자 일치
2등	50,994,006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393,193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	상가 매매 (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용가능 (룸, 노래홀, 홀덱)</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기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 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 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	